

# 유일농장 - 한동수 농가

## 2007년 돼지 고급육 생산 대상 농가

음성출장소장 강인수

충북 음성군 생극면 임곡리의 유일농장(대표 한동수)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개최한 「2007 등급판정 결과 우수농가 표창」농가 중 돼지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한 농가이다. 처음에는 밭작물 농사와 겸업해 위탁돈 사육으로 시작했으나, 본격적으로 자영을 마음먹고 1996년도에 분만사와 자돈사를 신축하면서 전문 양돈경영인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지금은 대지 5천평에 종부사, 임신사, 육성비육돈사 등 각 돈사를 추가로 만들고 사육규모 3천두의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양돈농가가 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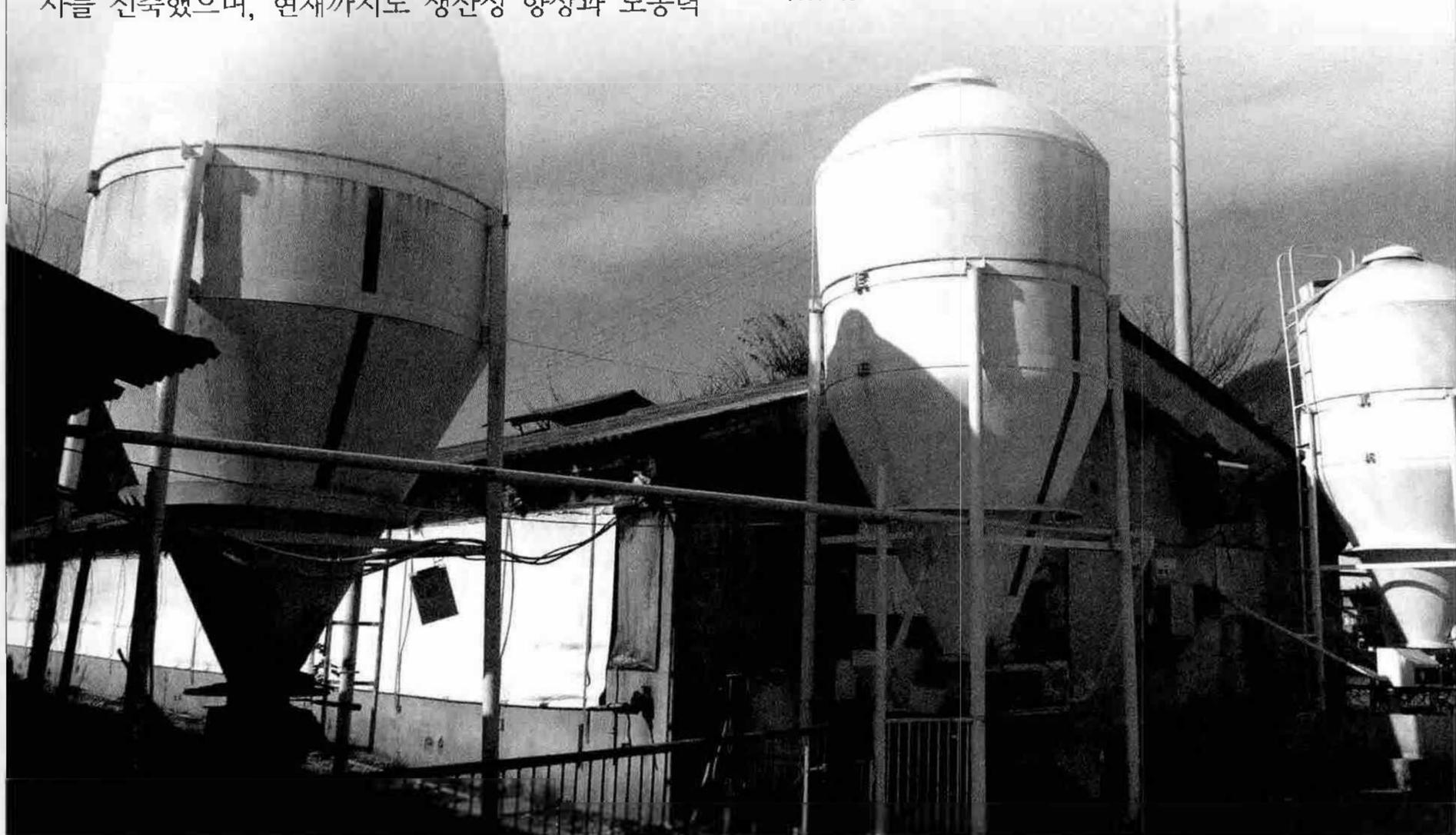
### 사양관리

그 당시 위탁양돈경영 2년의 신출내기 양돈인으로는 파격적으로 초기 과도한 고정자본투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창돈사(Windowless)로 분만사와 자돈사를 신축했으며, 현재까지도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

의 효율적 분배에 있어 대단히 만족스러워 하는 부분이다. 또한 올인 올아웃(All in and All out)시스템을 적용해 사육과정을 집약화하고 노동력을 감소시켜 작업의 질과 효율을 개선시켰다. 그리고 늘 바쁘고 긴장을 늦출 수 없기는 하지만 농장의 제반 사양관리를 1주일 단위로 묶어서 관리하는 주간단위 관리기법을 도입했다.

###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의 꿈

항생제 없이 돼지를 기른다는 것은 사실 크나큰 모험이긴 했지만 안전식품 생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2006년 8월부터 일체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. 이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봉침시술과 K사의 임뮤 포르테(Immu-Forte)라는 첨가제로 항병성을 강화시켜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과 저항성을 향상시켰다.



# 안전하고 맛있는 식육생산 국제 경쟁력 제고를 꿈꾸며...

## 향후 방향

지금은 글로벌화되고 오픈된 시장경제로 단지 국내 산 축산물이니까 우리 돼지고기를 먹어달라며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건 이미 한계에 와 있고 지나친 억지일 것이다. 당당히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성과 맛에서 인정받기 위해 올 1월 양돈장 HACCP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)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. 혹자는 2~3년 내에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돈산업의 구조조정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. 이에 양돈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사고와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식육을 생산한다는 돈육생산중심의 마인드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. 경쟁력이 있다는 건 그만한 노력과 정성, 앞선 기술, 혁신적인 마인드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.



〈육질등급 판정결과〉 (기간: '06년 10월 1일~'07년 10월 31일)

등급	1*등급	1등급	2등급	계
출현율(%)	4.7	85.7	9.2	1,349두

〈항목별 판정결과〉

등급	도체중(kg)	등지방(mm)	A+B등급(%)
본인	86.1	21.9	84.5
상위 10%	85.2	21.3	86.5
전국	85.5	21	68.7

